

论清代义学的书院化*

张 劲 松**

- 一、清代义学书院化的表征
- 二、清代义学书院化的动因
- 三、清代义学书院化的影响

【中文摘要】

在清代的教育体系中出现了义学与书院的合流现象,其中之一是义学的书院化。义学书院化的表征是大量义学冠以“书院”之名,从而成为书院的一部分。促使义学书院化的动因主要有地方向慕、管控松弛和官员提倡等方面。义学的书院化促进了清代书院的普及繁荣,推动书院规制变革,同时也模糊了义学与书院的边界,使在更大的范围内开展义学与书院关系的讨论成为必要。

关键词：义学, 书院, 清代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813).

** 南昌师范学院书院研究中心教授, 硕士研究生导师(1050799550@qq.com)

【국문초록】

청대(清代) 의학(義學)의 서원화(書院化) 연구

장 경 송**

一. 청대 의학의 서원화의 표증(表證)

의학의 서원화는 주로 의학 관명(冠名)을 ‘서원’이라고 표시하는 현상으로 표현된다. 일찍이 역사 속에서 출현한 적 있는 몇몇 의학(義學)은 서원의 기능, 제도 및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 강서(江西) 지역을 예로 들면, 북송대 서창(瑞昌, 오늘날 강서 서창)의 채씨의숙(蔡氏義塾)과 원대 풍성(豐城, 강서 풍성) 게씨(揭氏)의 천강의숙(蒧岡義塾), 만안(萬安, 강서 만안)의 유씨유림의숙(劉氏儒林義塾) 등은 모두 강학을 담당하는 이름난 선생들과 풍부한 학전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 비록 ‘서원’이라는 명칭은 없었으나 서원의, 실질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청대 의학의 보편적인 학습 수준은 비교적 낮았으며, 생도는 몹시 적었고, 규모 또한 작았다. 게다가 학습의 질 또한 그리 높지 않아서, 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 경우 ‘서원’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서원의 내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동치(同治) 연간의 《신창현지(新昌縣志)》(강서 의풍(宜豐)) 제5권의 기록에 따르면, 이 현은 청대에 각(閣), 당(堂), 원(園), 재(齋), 별서(別墅), 가숙(家塾), 서사(書舍), 서실(書屋), 산방(山房) 및 ‘서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서원이 120여 개소가 건립되어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원’은 실질적으로 가숙, 서사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학(義學)에 해당하였다. 예컨대 남명서원(南屏書院)은 강릉별서(江陵別墅)로서, “남성 바깥에 강을 등지고 위치하며, 웅씨 일가가 함께 건립한 곳이다(在南城外河背, 熊氏眾建).” 회란서원(回瀾書院)은 “육도(六都)에서 풍계 이씨 일가가 함께 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남창사범학원 서원연구센터

립한 문회(文會)이며, 학조(學租)를 기부받았다(在六都 豐溪李氏眾建成文會, 捐有學租). 반수서원(泮水書院)은 “십도(十都)에 위치해 있으며, 노씨 일가가 건립하였다(在十都 盧氏眾建)”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서원들은 주로 지역의 씨족 및 그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건립한 소규모 가속에 해당한다. 신창(新昌) 비린(毗鄰)의 강서 만재(萬載)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드러난다. 예컨대 곽산(郭山) 장씨(張氏)는 강희(康熙) 46년(1707년)에 청아서원(菁莪書院)을 건립하였고, 도광(道光) 8년(1828년) 배강(排江) 구양씨(歐陽氏)가 지은 석계서원(石溪書院, 함풍(鹹豐) 7년(1857년) 반령(半嶺) 류씨(劉氏)의 류씨서원(劉氏書院) 등도 모두 씨족 자제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로 건립된 것이다. 강서 지역 외에도, 청대의 많은 직성(直省)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정황이 발견된다. 예컨대 호북성(湖北省)에서는 건륭 연간(乾隆年間)의 지방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서원화된 의학만 해도 적지 않은데, 예컨대 면양(沔陽) 옥대서원(玉帶書院), 황강(黃岡) 평강서원(坪江書院), 진영서원(振英書院)과 관선서원(觀善書院, 이후 몽정서원(蒙正書院)으로 개명), 내봉(來鳳)의 구림서원(桂林書院, 일명 묘동의학(卯峒義學)), 이천(利川) 쌍강서원(雙江書院, 일명 충로의학(忠路義學))과 여고서원(如膏書院, 일명 남평의학(南坪義學)), 남장(南漳) 저장서원(沮漳書院), 은시(恩施) 봉산서원(鳳山書院), 운몽(雲夢) 몽택서원(夢澤書院) 등이 있다. 이상 서원화된 의학들은 대부분 관원의 기부를 통해 수복된 곳들이다. 예를 들어 건륭 9년(1744년) 황강현(黃岡縣)의 진영서원은 본래 지부(知府) 이언모(李彥瑁)의 사당이었었는데, 훗날 현지의 다른 지부가 자제들을 가르치는 서원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대 호북 지역의 가계 족보와 같은 민간 문헌에 수록된 교육 사료들을 분석해보면, 이처럼 ‘서원’의 이름을 쓰고 있는 의학이 더욱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二. 청대 의학의 서원화의 원인

첫째, 지방에서의 서원에 대한 흥미 : 서원은 당대에 출현한 이래로 줄곧 관학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원은 관방학 제도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서원의 학습 경비는 주로 지역 사회의 기부에 의존하였으며, 임원들의 초빙이나 생도 선발, 관리 체계 방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탄력적이었다. 관학이 점차 어진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잃어가

기 시작했고,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변모하면서, 서원은 그 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바로 과거의 큰 스승들이 강학을 열고 인재들을 배양하며, 유가 문명의 전승 및 그 교육 체제를 완비한 중심지가 된 것이다. 여산(廬山)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필두로 하는 천하의 저명한 서원들은 관학을 포함한 각종 교육 기구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시설이 되었다. 청대 의학의 서원화는 의학 시행 주체가 서원 교육을 힘모하여 구현된 것으로, 의학에 서원이라는 이름을 덧씌워 형식적인 차원에서 의학의 학습 수준을 상승시켰고, 의학의 학습 취지는 바로 서원의 교육, 서원 정신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의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비 조달과 생도 유치, 내부 관리를 조성하면서 발전 목적을 달성하였다. 동시에, 의학의 서원화는 서원의 사회적 영향력이 청대에 정점에 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관리의 완화 : 청대 초기의 서원 관리 정책은 안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비교적 엄격하였다. 순치(順治) 9년(1652년) 개별적인 서원 창건을 불허한다는 명령이 공포되었고, 옹정(雍正) 원년(1723년)에는 조정으로부터 관원의 생사(生祠), 서원을 의학으로 변경하라는 등의 명령도 하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옹정 11년(1733년)에 이르러 비로소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다. 이 해에 옹정 황제는 총독, 순무사가 주재하는 지역에 회성서원(會城書院)을 건립할 것을 명하면서 금 천 냥을 하사하였다. 이에 청 조정의 서원 정책은 비로소 전환을 이루게 되었고,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규제를 병행, 전환을 이루도록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로부터 청대 서원이 급속도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조정에서 건립한 성회 서원이 시범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府), 주(州), 현(縣) 지역의 중심 서원들 또한 잇따라 흥성하기 시작하면서 관학을 대신하여 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원 내부의 사무 또한 점점 복잡해졌고, 서원 산장, 생도, 학전 등은 모두 관에서 초빙, 선발, 경영을 전담하였다. 이러한 관부의 관리 양식은 일련의 폐단을 낳고 만다. 예컨대 서원 산장이 교육비를 받고도 서원에 강학을 하러 오지 않거나, 탐관들이 서원 경비를 침탈, 횡령, 은닉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관리들의 운영에 다양한 폐단이 속출하자 서원은 수많은 굴곡을 겪었고, 그 수준 또한 연일 하락하여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청 조정은 일찍부터 수차례 명령을 하달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원의 관리 양식을 지속적으로 조절하였다. 건륭 중기 이래로 서원의 사무는 점차 관부 친화적인 형태에서 지방 향신의 경영으로 이행하게 된다. 지방 향신들은 자금 출자와 같

은 방식을 통해 서원에 스며들어 행정 사무를 모두 책임지는 동사회(董事會)를 성립시켰다. 나아가 그들은 “산장은 읍내 사람들의 공동 회의를 통해 연청하며, 관리는 이에 관여할 수 없음(山長以邑人公議延請, 官吏俱不爲經理)”과 같은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관반민조(官辦民助)에서 관독민반(官督民辦)으로 서원 경영 방식을 개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원 건립에 대한 열기에 더욱 불을 지폈다. 청 조정의 서원 통제 정책의 완화는 민간 서원 건립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고, 보관존안(報官存案)과 같이 허례허식 일색인 절차를 구문(具文)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제도 차원에서의 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학습 수준이 상승하였고, 학습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 이에 의학의 서원화는 지방 향신들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이 된 것이다.

셋째, 관원들의 주도 : 사법(司法), 징세(征稅), 치안(治安) 등의 업무와 비교하여 보면, 의학이나 서원과 같은 교육 기구를 부흥시키는 것은 청대 지방 관원들의 필수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관원들의 업무 평가에 있어서 오히려 체면을 잃기 쉬운 부분이기도 했다. 성현의 가르침 선전 의학의 부흥 및 창건, 또는 학궁(學宮) 수복 등의 이른바 “교화를 널리 이루는” 과업들은 언제나 탁월한 치적으로 여겨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주, 현의 관리들이 사문(斯文)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학궁의 수복, 서원 및 의학 창건 작업을 통해 지방 향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하였던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앞에서 말했듯,雍正 11년 회성 서원의 창건, 부흥 명령이 하달된 이래로, 고차원적인 교육의 대명사와 같았던 서원은 그 전통에 현실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상부에서 시행하는 바가 있으면, 하부에서 반드시 그것을 본받았으니, 이로 인해 서원의 흥성은 주, 현 관원들이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는 불문율의 과업이 되었다. “앞에서 규정하면 뒤에서 따르게 되어, 모두가 부흥에 힘썼으므로(前規後隨, 皆務興起)”, 이러한 경향은 지방 관원들의 시범 및 제창에 힘입어 향촌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향촌의 더욱 많은 의학이 서원화가 된 것이다.

三. 청대 의학의 서원화의 영향

청대 서원 보급 및 번영의 촉진 : 의학의 서원화는 청대 신축 서원의 수량을 더욱 증가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청대에 건립된 서원만 총 5000여 개소에

달한다. 이는 당, 송, 원, 명 4대 왕조에 건립된 서원수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동시에, 서원화된 의학은 주로 넓은 향촌에 위치해 있었고, 이는 과거 서원의 분포상에서의 공백을 크게 메꾸는 작용을 하였다. 이로써 청대 서원은 총체적인 보급과 변역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서원 규제 개혁의 촉진 : 의학이 서원화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성립이 발생했다. 서원의 성숙한 제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개조한 몇몇 의학 서원들은 경비 문제로 교사를 초빙하지 않고 고정된 건물이나 강학 장소도 두지 않으면서 다만 사당(祠堂)을 임대하여 정기 시험을 실시,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유생들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학, 제사, 학전, 장서로 대표되는 서원의 기본 규제는 의학의 서원화 과정에서 고과(考課)와 과장(課獎)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는 사실상 서원 규제의 변혁 촉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의학과 서원 간 경계의 소실 :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의학은 주로 반궁한 선비들의 기초 교육을 위한 장소였다. 서원은 저명한 선생들이 강학하고 의리(義理)를 토론하며, 이로부터 과거에 응시할 인재들을 배양하는 고등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의학과 서원 간의 경계가 뚜렷했다. 그런데 청대에 의학이 서원화 되면서, 양자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도 상호 구분이 어려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청대 건륭 연간 이래로 전승된 지방지(地方志)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많은 지방지에서 기록하는 ‘의학’과 ‘서원’이라는 명칭은 상호 혼용되어 무엇이 원래 서원이고 의학이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심지어 호북(湖北) 가어현(嘉魚縣)의 기록을 보면 ‘의학서원’이라는 명칭도 등장한다. 이는 청대 의학, 서원 연구 작업에 있어 하나의 큰 과제가 되었다. 각자 어떻게 연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초할 것인가? 이는 청대 교육 연구 영역에서 반드시 직시해야 할 문제이다.

주제어 : 의학, 서원, 청대

在清代官方话语体系中, 义学主要包括二种类型: 一种是在少数民族聚居区建立的面向少数民族子弟的教育机构, 如顺治十五年(1658)题准: 土司子弟有向化愿学者, 令立学一所, 行地方官, 取文理通明者一人, 充为教读, 以司训督。岁给饩银八两, 膏火银二十四两, 地方官动正项支給。[1](卷七十三 义学事例)再如雍正三年议准: 云南威远地方, 设立义学, 令彝人子弟有志读书者, 入塾诵习。又议准: 黔省苗人皆有秀良子弟, 令各府·州·县设立义学。嗣后, 苗人子弟情愿读书者, 许各赴该管府·州·县报名, 送入义学, 令教官严加督察。[1](卷七十三 义学事例)在少数民族聚居地官为建立义学, 是清政府用以加强地方控制·促进民族融合的重要措施, 文献所在多有, 不赘述。清代义学的另一种是内地面向贫民子弟设立的学校, 此类学校亦得到清廷的大力倡导, 如康熙五十二年(1713)议准: 令各省府州县多立义学, 延请名师, 聚集孤寒生童励志读书。[1](卷七十三 义学事例)雍正九年题准: 定州县于大乡巨堡各置社学一区, 俱由该管官选择生员学优行端者补充教习, 免其差徭, 量给廪饩。其民间自立者即概称义学, 凡子弟年十二以上, 有志学文者俱令入学肄业[2], 等等。

清代义学的主体相当于今天的基础教育阶段, 肄业生徒以蒙童为主, 内容主要为训蒙句读。如雍正元年(1723)上谕规定, 近乡子弟年龄在十二以上, 二十以内, 有志学文者, 俱令入义学肄业, “务期启发蒙童, 成就俊义”。[1](卷七十三 义学事例)地方官员在实践中亦指义学的教育对象以蒙童为主, “义学则以启蒙童, 授句读, 使穷乡贫困户子弟无从师者, 皆得以就学, 亦古盛时乡塾党庠之遗意也。”[3](卷四)·“乃贫而失业之人又往往不能教其子弟, 虽守令诸君设义塾于四郊, 择师而教之, 捐廪而食之, 亦屡满矣。然散而不专, 且小学耳, 誉髦则不及焉。”[4]反之, 书院则不同。书院自唐代兴起以来, 为成人之学, 是古之大学, 其教育对象·教学程度·办学层次·组织形式与义学迥异。元儒吴澄(1249-1233)关于书院的观点颇具代表性:

维郡邑之学亦有废不立之时, 学者无所于学, 于斯时也, 私设黉宫, 广集学徒以补学校之缺, 如李渤之于白鹿, 曹诚之于睢阳是也。上之人以其有裨

于风化, 賤賜額敕以风厉天下, 与河南嵩阳·湖南岳麓之号, 此先宋以前之书院也. 宋至中叶, 文治浸盛, 学校大修, 远郡僻邑, 莫不建学, 士既各有群居肄业之所, 似不类乎私家之书院矣. 宋南迁而书院日多, 何也? 盖自春陵之周·共城之邵·关西之张·河南之程数大儒相继特起, 得孔圣不传之道于千五百年之后, 有志之士获闻其说, 始知记诵词章之为末学, 科举程课之坏人心, 而郡邑之间设科养士所习不出乎此. 于是新安之朱·广汉之张·东莱之吕·临川之陆, 暨夫志同道合之人讲求为已有用之学, 则又自立书院, 以表异于当时郡邑之学·专习科举者, 此后宋以后之书院也.[5]

因之, 研究者普遍认为义学与书院分别为二个不同层次的教育组织, 书院“教学的程度也比义学高, 不属于普及性教育”. [6]如李才栋先生在清代道光至清末的江西书院研究中认为, 道光以后, 江西书院新建的数量颇多, “然而滥极. 其中相当多是私塾·会馆·文会·祠庙性质的机构. 在统计中, 已经剔除又剔除, 所余者, 因缺乏进一步剔除的根据, 只得录以备考.” [7]何君扬在清代浏阳书院研究中明确区分书院与义学的不同, 县学·书院·义学是清代浏阳教育系统的不同组成部分, 共同构成了清代浏阳教育的主要体系.[8]

显然, 义学在办学层次上要低于以实施高等教育为主的书院教育. 但是, 清代出现了义学的书院化倾向, 义学与书院的边界模糊, 成为清代教育研究中亟待重视的一个问题.

一·清代义学书院化的表征

义学的书院化主要表现为义学冠名为“书院”成为一种现象. 历史时期, 曾出现过少数义学具有书院的功能·制度与模式, 以江西为例, 北宋时期瑞昌(今江西瑞昌)的蔡氏义学, 元代丰城(今江西丰城)揭氏的蓐冈义塾·万安(今江西万安)刘氏儒林义塾等, 均有名师讲学·田产丰厚·影响较大等特点, 虽无

“书院”之名却有书院之实。如蔡氏义学，“在瑞昌，元邑人蔡季霖建，其子士仁修室宇，赡供给，延名师以教其乡党子弟，虞集为之记。”[9]

与之不同的是，清代的义学普遍办学层次较低，生徒数量较少，院产规模不大，办学质量不高，社会影响寥寥，有“书院”之名但无书院之实。如同治《新昌县志》（今江西宜丰）卷五记载，该县于清代建有各类以阁·堂·园·斋·别墅·家塾·书舍·书屋·山房及“书院”为名的书院120余所，蔚为大观。但其中的“书院”实与家塾·书舍等相同，均为义学层次，如南屏书院，即江陵别墅，“在南城外河背，熊氏众建”；回澜书院，“在六都，丰溪李氏众建成文会，捐有学租”；泮水书院，“在十都，卢氏众建”，[10]等等，这些书院主要是地方家族及其成员捐建的小规模的族塾。与新昌毗邻的江西万载（今江西万载）也常见类似情况，如郭山张氏建于康熙四十六年（1707）的菁莪书院，道光八年（1828）排江欧阳氏的石溪书院，咸丰七年（1857）半岭刘氏的刘氏书院等，均为本族子弟的训蒙之所。[11]除江西外，清代其他直省也多有此类情况，如湖北省，仅乾隆时期在地方志中记载的书院化的义学就有沔阳玉带书院·黄冈坪江书院·振英书院和观善书院（更名蒙正书院）·来凤桂林书院（一名卯峒义学）·利川双江书院（一名忠路义学）和如膏书院（一名南坪义学）·南漳沮漳书院·恩施凤山书院·云梦梦泽书院等。[12]这些书院化的义学多为官员捐廉倡修，如乾隆九年（1744）黄冈县的振英书院，本为知府李彦瑁祠，后知府改为书院以训蒙童。此外，清代鄂西的施南府（治今湖北恩施）的书院亦大多为义学，蔡志荣称因施南地偏，人文不发达，改土归流后学宫未设，义学·书院是地方主要教育机构，“一些义学以书院命名，如利川双江书院·如膏书院·笔峰书院。书院承担地方启蒙基础教育的职能，如同义学。”[13]再如清代的贵州，“乡村书院一般层次较低，主要授受蒙童，承担启蒙教育的任务。如嘉庆年间在锦屏里卦治村上寨·中寨·下寨建立的文岳书院·文育书院·文澜书院，隆里所的图园书院，虽名为书院，实际相当于义学和社学”，[14]此类书院主要授受童蒙，教化乡里子弟。由于上述区域书院研究著作的主要史料来源为地方志，如果进一步挖掘清代江西·湖北·贵州等地家（族）谱等民间文献中的教育史料，可以肯定

此类冠以“书院”之名的义学数量会更多.

二·清代义学书院化的动因

清代出现义学书院化现象,其原因较为复杂,概言之,主要有以下几方面:

(一)地方向慕. 书院自唐代兴起以来,一直未进入官学体系,不是官方学制的组成部分.²书院的办学经费主要依靠社会捐助, 师长的聘请·生徒的遴选以及管理模式相对自由而灵活. 在官学逐渐失去兴贤育才的功能而沦为科举考试预备机构后, 书院成为补其不足的清流, 是传统时期大师讲学·人才培养·儒家文明传承及教育规度创置的主阵地, 以庐山白鹿洞书院等为代表的天下著名书院成为包括官学在内的各类教育机构争相仿效的对象. 如江西万载(今江西万载)张氏的张岩书院, 元临江(今江西樟树)儒学教授张千崖(生卒不详)建, 张氏没, 其甥萍乡县人荣岳孙(生卒不详)捐资缮治, 率族人子弟就学, 此书院实为张氏及其姻亲的家塾. 元代著名学者虞集(1272-1368)在《张岩书院记》中称:“宜春在江右之上游, 其风土淳厚, 其人易与为善. 西瞻

2 历史上书院在若干时期曾出现过官学化现象, 如南宋末年, 部分书院山长由吏部注差, “诏吏部诸受书院山长者并视州学教授”. 景定时期建康的明道书院山长由江东干抚的各级官员兼任, 经费主要官为拨付, 等等; 元代书院管理严格, 书院多委官为山长, 如吉安庐陵(今吉安市吉州区)凤山书院, 元初“官提其纲, 长任其教, 士竞其业”; 饶州府万年县(今江西万年)南溪书院, 原为宋提刑柴中行讲学处, 后子孙建祠, 元延佑间置官掌祠事, 等等. 明代若白鹿洞书院则长期官为经营, 书院洞主多有以南康府知府·南康府推官·星子县学官等兼署, 实为洞学; 清代则自雍正十一年后有会城书院之建, 嗣后各直省除会城书院外, 尚有布政使·按察使·盐道·粮道等各级官员支持的书院, 以江西为例, 豫章书院则巡抚为之, 友教书院则按察使主之, 洪都书院则南昌府知府, 东湖书院为南昌县知县, 西昌书院为新建县知县, 等等. 书院虽在不同的历史时期出现过诸如山长授以官职·经费官为拨付·生徒进退视同官学等现象, 但从总体上看, 书院并未系统性地纳入官学教育体系, 不是官学的组成部分.

衡岳则岳麓书院在焉。东望庐阜则白鹿洞在焉。此昔贤之所经营，皆依乎名山大川者也”，[15]勉励张岩书院以长沙岳麓书院、庐山白鹿洞书院为榜样。元代江西乐安（今江西乐安）陂溪书院，为邑人夏友兰建，夏氏少从大儒吴澄游，“邑尉明安岱尔捐置书院田五百亩，皇庆元年赐额设官，规制与白鹿·鹅湖等。”[16]再如清代江西清江（今江西樟树）阁皂山有紫阳书院，一名道德宫，实为羽流清修的道观，其院门有对联：“杏坛绛帐堪可继，鹿洞鹅湖当并传”，亦以鹿洞·鹅湖为楷模。[17]等等。

清代义学的书院化是义学举办者向慕书院教育的集中体现，将义学冠以书院之名，从形式上提升了义学的办学层次，表明义学办学宗旨以书院教育·书院精神为旨归，从而扩大义学的社会影响，达到经费筹措·生徒招徕·内部管理等健康发展的目的。同时，义学的书院化也进一步表明书院的社会影响在清代达到了历史高峰。

（二）管控松弛。出于稳定统治的目的，清初的书院管控政策较为严厉，如顺治九年（1652）谕令不许别创书院，雍正元年（1723）责令将官员的生祠·书院改为义学，等等。这一情形直到雍正十一年（1733）才有所改观，是年雍正皇帝谕令在督抚驻劄之地建立会城书院并各赐帑金1000两。[18]（卷七十二）至此，清廷的书院政策才有了基本转向，由严格限制向大力提倡与全面监管并行转变，从而为清代书院的迅速发展创造了条件。在朝廷兴建省会书院的示范作用下，府州县区域中心书院接踵兴起，并取代官学成为区域文化教育中心。[19]随之而来的是书院内部事务日益庞杂，书院山长官为荐聘·生徒官为甄选·院田官为经理等官府管理模式出现了一系列弊端，如书院山长遥领束脩而不莅院主讲，书院经费屡遭贪官的侵渔·蠹吏的侵占·刁佃的隐匿，等等，虞集曾痛心疾首地称：“今天下好事者筑室买田以资讲习，然一列于学官，则行有司之事，而弦诵笱豆殆为文具者多矣。[15]官为运营弊窦百出，书院兴废无时，质量每况愈下，影响恶劣。为此，清廷曾多次颁发谕旨，在加强监管的同时，不断调适书院的管理模式。乾隆中期以来，书院事务逐渐由官府亲自下场让渡给地方士绅经营，地方士绅经由捐助院产等方式进入书院，成立全

面负责行政事务的董事会,推行“山长以邑人公议延请,官吏俱不为经理”等系统改革,实现书院经营由官办民助向官督民办模式的转变,从而进一步刺激了民间兴办书院的热情。清政府书院管控政策的松弛使民间兴建书院更加灵活,报官存案等繁文缛节视同具文,在没有制度障碍下,为提升办学层次,扩大办学影响,义学的书院化成为地方士绅的主动选择。

(三)官员提倡。与司法·征税·治安等比较,兴办义学·书院等教育机构不是清代地方官员的要务,但却是官员考绩时容易出彩的地方,宣讲圣谕·兴建义学·修葺学宫等“教化兴行”常被视为“卓异”的政绩而受到关注。因此,我们常见州县官下车伊始即留意斯文,或兴修学宫,或倡建书院·义学,从而获得地方绅众的高度评价。如前文所述,雍正十一年谕旨兴建会城书院以来,书院作为高层次和高水平教育代名词的传统被赋予了现实意义,上有所施,下必效之,兴办书院因此几乎成为州县官员为任一地方时不成文的规定。“前规后随,皆务兴起”,在州县地方官员的示范·提倡·乐见之下,这一倾向出现了由州县治城向乡村漫延的趋势,从而推动着更多的乡村义学向书院化发展。

三·清代义学书院化的影响

胡昭曦先生在四川(包括今重庆市)书院研究中指出,“一般而言,省·道·府(州)·县书院是比较规范的,而乡镇书院则时有变化”,他在清代梳理四川乡村书院与义学·家塾之间的关系及异同时指出,乡镇书院的变化主要有以下几种情况,一是把乡镇书院列为乡学;二是义学改为书院;三是义学与书院不分;四是把义塾“小书院”;五是新建时就称为书院;六是义学为书院的补充;七是由家塾而改为书院等,从中可以看出清代四川乡镇书院与义学·家塾的性质基本相同,换言之,乡镇书院即为义学或家塾。[20]马晓春亦认为清代存在各种等级的书院,其中既有专门培养童蒙的书院,也有类似今天研究生院程度的书院,“相当于初等学校程度的书院,一般设在小县或乡镇,主

要招收童蒙或童生,与族学或义学比较接近,如(杭州)新城龙山课院·会文馆·桐庐三峰书院等均属此等级。”[21]吴榕青认为清代中后期的官办书院按它们的所在地和创办的官员,可分为省·道·府·县几种行政级别,名义上分别由督抚·道台等各级官员主管,但“县以下乡村书院,多属义学·私塾基础教育,官员无暇管顾了”,认为不在府州县治的乡村书院主要为义学。[22]上举胡昭曦·马晓春·吴榕青等例表明,乡村书院为义学似为普遍共识,乡村书院为义学的实质是义学的书院化,其带来的影响是显而易见的,主要有:

(一)促进清代书院普及繁荣。义学的书院化使清代新建书院的数量激增,据统计,清代新建书院总数达5000余所,超过唐宋元明四代的总和。[23]同时,书院化的义学主要位于广袤的乡村,大量填补了历代书院空间分布上的空白,使清代书院总体呈现出普及繁荣的特点。

(二)推动书院规制变革。义学在书院化的过程中,因地制宜,对书院成熟规制进行改造,如有的义学书院因经费支绌而不聘请师长,也没有固定的建筑与场所,仅借祠堂等地定期举行考课,并根据考课成绩给予应考士子一定的课奖。如此,讲学·祭祀·学田·藏书等书院规制在义学的书院化中演变为考课与课奖,事实上推动了书院规制的变革。

(三)模糊义学与书院边界。传统意义上的义学主要为孤寒士子的基础教育,书院则是大师讲学·讲求义理·培养科举人才的高等教育,各自的边界相对清晰。清代义学的书院化模糊了二者之间的界限,从名称上难以区分相互之间的差别,这在清代乾隆以来递修的地方志中表现尤为明显,不少地方志中的“义学”与“书院”你中有我,我中有你,混为一谈,甚或湖北嘉鱼县出现了“义学书院”之名。[24]这给清代的义学与书院研究带来挑战,甚至一定程度上较为混乱,如何甄别义学与书院各自的研究对象·如何正确认识义学与书院的异同成为首要任务,这是清代教育研究需要正视的问题。

【参考文献】

- (清)索尔讷等纂修(2009), 霍有明, 郭文海校注. 钦定学政全书校注(历代科举文献整理与研究丛刊)[M]武汉: 武汉大学出版社.
- (清)阿桂等修,(清)刘谨之, (清)程维岳纂. 钦定盛京通志(卷四十四). [M]四库全书本.
- (清)王庭桢, 雷春沼. 施南府志续编(卷四)[M]. 光绪十一年刻本.
- (清)查培继. 希贤书院记,(清)谢旻等修. 江西通志(卷一百三十四)[M]. 四库全书本.
- (元)吴澄(1974), 乐安鳌溪书院记,(清)王昶. 天下书院总志(卷七)(史料六编)[M]. 台北: 广文书局.
- 陈建国(2008), 明清时期义学的经费管理[J]西安邮电学院学报.
- 李才栋(1993), 江西古代书院研究[M].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何君扬(2015), 清代浏阳书院研究[D]. 长沙: 湖南大学.
- (清)谢旻等修. 江西通志(卷二十二)[M]. 四库全书本.
- (清)朱庆蓁等纂修. (同治)新昌县志(卷五). 北京: 国家图书馆.
- 张劲松(2021), 《江西书院》家族书院补遗,胡青, 黎华主编. 中国书院论坛(第十一辑)[J]南昌: 江西人民出版社.
- 冯明(2014), 清代湖北义学研究[M].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蔡志荣(2014), 明清书院与地方社会: 以明清湖北书院为中心考察[M].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张羽琼(2017), 贵州书院史[M]. 贵阳: 孔堂书局.
- (元)虞集(1974), 张岩书院记. (清)王昶. 天下书院总志(卷七)(史料六编)[M]. 台北: 广文书局.
- (清)谢旻等修. 江西通志(卷二十一)[M]. 四库全书本.
- 宜春学院图书馆(2022), 宜春市党史地方志工作办公室. 宜春地情文化特色数据库 OL/樟树紫阳书院 (zxhnzq. com).
- (清)索尔讷等纂修(2009), 霍有明, 郭文海校注. 钦定学政全书校注(历代科举文献整理与研究丛刊)[M]武汉: 武汉大学出版社.
- 张劲松(2019), 清代义宁州书院研究[D]武汉: 华中师范大学.
- 胡昭曦(2006), 四川书院史[M]. 成都: 四川大学出版社.
- 马晓春(2015), 杭州书院史[M].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吴榕青(2019), 韩山书院史稿[M]. 深圳: 深圳报业集团出版社.
- 邓洪波(2012), 中国书院史(增订版)[M].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清)迈柱修,(清)夏力恕等纂. 湖广通志(卷二十二)[M]四库全书本.

Abstract

On the Academization of Yihak in the Qing Dynasty

Jang Kyeong Song*

In the education system of the Qing Dynasty, there was a phenomenon of confluence of free schools and academies, one of which was the academization of free schools. The sign of the academization of free schools is that a large number of free schools are named "academies" and thus become part of the academy. The main reasons for promoting the academies of Yixue are local admiration, loose management and advocacy by officials. The academism of Yixue promoted the popularity and prosperity of academies in the Qing Dynasty, and promoted the reform of academy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it blurred the boundary between Yixue and academ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schools and academies in a larger scope.

Key word : Yihak, Academy, Qing Dynasty

논문 투고일: 2022. 10. 25 심사 완료일: 2022. 12. 09 게재 확정일: 2022. 12. 16

* Professor of Academy Research Center of Nanchang Normal University.